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주)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
김 정 식

어렵고 힘들었던 2006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협회 회원님 그리고 파렛트뉴스 애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희망과 변화의 용기를 가지고 큰 발전과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 정치의 불안정, 심화된 계층간 갈등, 북핵문제, 천정부지의 유가 상승,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 등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협회는 지난해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룩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사업이 결실을 맺어 2006년 6월 8일 동경에서 아시아파렛트연맹(ASIA PALLET SYSTEM FEDERATION)이 창설되었으며 한국형 표준 파렛트 T-11형이 APSF의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로 채택되었음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을 국제화하여 아시아 통합 물류의 초석을 이룩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협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표준 파렛트 시스템 보급 확산에 필요한 UNIT LOAD 연수교육 프로그램 역점 사업으로 전개하였습니다.(아시아 각 국의 파렛트 업계의 인재육성알림)

둘째: 모든 아시아 국가가 APSF에 가입토록 적극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그리고 물류 유관기관, 단체, 학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확고한 신념과 노력으로 힘을 합친다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계속하여 전개해온 주요사업을 더욱 알찬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황금돼지의 꿈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2007년 1월

새해아침